

국 외 소 식

세계 타이어業界 不況突入 조짐

歐美 각국의 자동차산업의 불황으로 인하여 세계 타이어 메이커들의 영업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경영환경의 악화와 함께 타이어 메이커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경영환경의 악화는 세계적으로 타이어 판매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인데, 각 타이어 메이커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생산거점에 대한 구제조치, 생산최적화를 위한 공장폐쇄, 그리고 종업원감축안을 차례로 내어놓고 있다.

Goodyear, Michelin, Bridgestone 등 이른바 세계 3대 타이어 메이커들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졌다. 그러나, 추가투자 및 기업재편성에 따른 비용 부담은 사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아져 자동차 판매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메이커는 고전이 예상된다.

일본의 타이어 메이커인 Bridgestone 및 Sumitomo고무는 국제전략의 일환으로 매수하였던 각 거점공장들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하여 추가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Toyo고무는 독일의 Continental과의 합작생산계획을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그 시기를 1년간 연기했다.

즉, Bridgestone은 미국에 있는 子會社인 Bridgestone/Firestone이 차입금 삭감을 위하여 14억달러(日貨 약 1,900억엔)를 증자하기로 한 결정을 승인했다. 이는 사실상의 추가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同社는 Bridgestone/Firestone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약 38억달러의 차입금을 안고 있는데, 이번에 14

억달러를 증자함으로써 금리부담을 줄이는 한편, 자산의 매각 및 종업원감축 등의 대책을 수립, 이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1992년도까지는 收支均衡을 맞출 계획이다.

그리고 Sumitomo고무도 1990년에 매수하였던 Dunlop이 적자를 보였는데, 同社는 매년 100~200억엔의 설비투자를 계속하여 왔다. 1991년도에도 200억엔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Toyo고무는 독일 Continental과의 합작생산계획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Continental이 이탈리아의 Pirelli와의 합병작업이 순조롭지 않은 데 따른 조치이다.

(KOTRA 후쿠오카 貿易館)

싱가포르 타이어市場 국제경쟁 치열

1990년도 싱가포르의 승용차용 타이어 수요는 최근 3년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45만개 정도로 나타났다.

현재 싱가포르의 타이어 시장은 25개국 50여개 브랜드의 수입품으로 극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고급승용차용 타이어의 경우 대부분 獨逸, 프랑스, 美國, 日本産 제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産 타이어의 경우 상업용 자동차, 즉 택시, Van 등 중저가품 시장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으나, 이 중저가품 시장 역시 말레이시아 및 日本産 제품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쟁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싱가포르내에 생산공장이 전혀 없는 데다 승용차수가 약 30만대에 불과한 시장의 소규모성에 따른 것이다.